

“ DRAM Trend-Monthly ”

IT/반도체/디스플레이 김운호
02) 6915-5656
unokim88@ibks.com

”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강한 수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수요의 주된 원인은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과 더불어 ‘DeepSeek’ 출시 이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분기에는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유예 기간이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단기성 긴급 주문이 늘어났다. 주요 DRAM 업체들은 DDR4 및 LPDDR4/X 등 일부 제품의 단종 계획을 고객사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다수 DRAM 제품들의 가격은 2분기 중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업체들은 최대한 재고 축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핵심 쟁점은 반도체와 IT 기기를 포함한 각 산업들에 대해 국가별 관세가 차등적으로 부과될지 여부다. 만약 그렇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여파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PC 생산의 80% 이상, 스마트폰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OEM들은 2025년 말까지 중국 외 지역에서의 PC 생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소비 물량은 중국 외 생산분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의 경우 미국 내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Apple은 생산 거점을 인도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생산 비중이 35% 이상으로 올라가야 미국 수요 전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KS View

- 1) 中 이구환신 · AI 투자 확산으로 수요 회복
- 2) 단종 이슈와 긴급 발주로 단기 가격 반등세
- 3) 수요 선반영으로 인한 하반기 수요 둔화 가능성

Server

Mobile

PC



제품군	중국 내 생산 비중	미국 내 소비 비중
Notebook	More than 80%	About 30%
Smartphone	More than 70%	Low teens % (11-13%)
iPhone	80%	iPhone market share: 60% in the US
Server	10-20%	30-40%

자료 : OMDIA, IBK투자증권

제품군	Comments
Notebook	Produced outside China, about 40 million vs. US consumption, 60 million
Smartphone	Produced outside China, about 350 million vs. US consumption, 130 million
iPhone	Produced outside China, about 45 million vs. US consumption, 80 million
Server	Taiwan/Mexico tariffs will be a bigger issue than the proportion of production in China

자료 : OMDIA, IBK투자증권

만약 반도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용 기기의 경우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원가는 약 200달러로 추정되며, 여기에 30% 관세가 붙으면 약 60달러가 추가된다. 이 비용은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도 있고, 판매자의 마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면, 서버 및 AI 칩 부문은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NVIDIA의 B200 제품은 반도체 원가만 약 5,000~5,500달러이며, 이 중 HBM이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30% 관세가 붙으면 NVIDIA의 영업이익률은 약 5%p 감소하거나, 최종 구매자에게 1,500달러 이상의 가격 전가가 필요해진다.

관세 정책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수요는 연초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반기에 리스크 회피 목적의 긴급 주문이 몰리면서, 하반기에는 정책 강도에 따라 수요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건은 DRAM 공급업체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될 것이다. 수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투자 및 생산계획 조정 역량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시장 환경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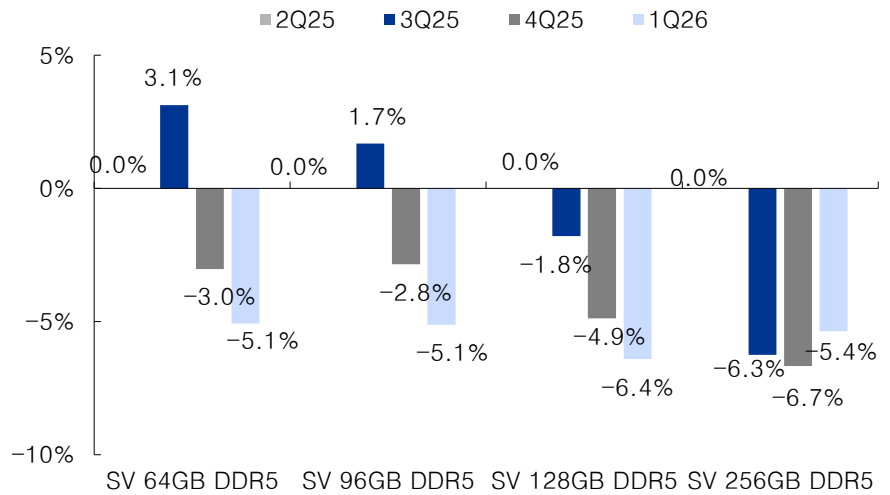
Key Chart

Server 64GB DDR5 QoQ

2Q25 +0.0%

3Q25 +3.1%

4Q2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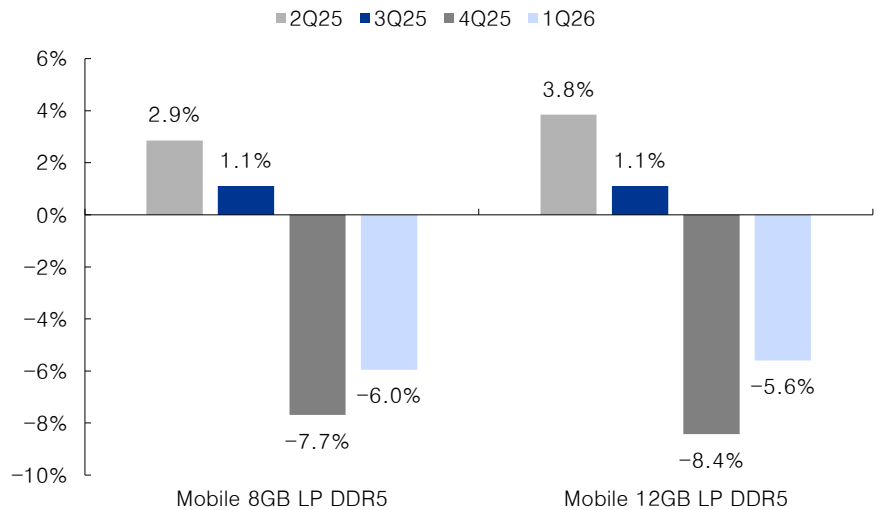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Mobile 8GB DDR5 QoQ

2Q25 +2.9%

3Q25 +1.1%

4Q25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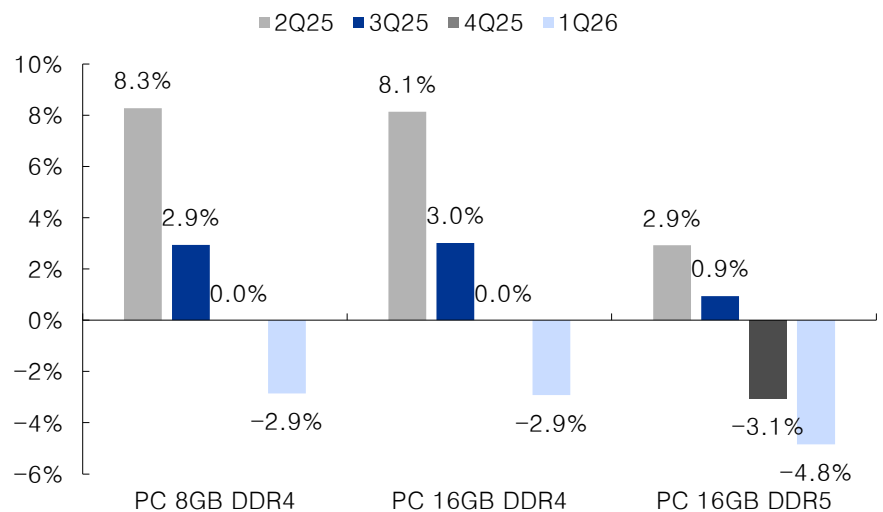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PC 16GB DDR5 QoQ

2Q25 +2.9%

3Q25 +0.9%

4Q2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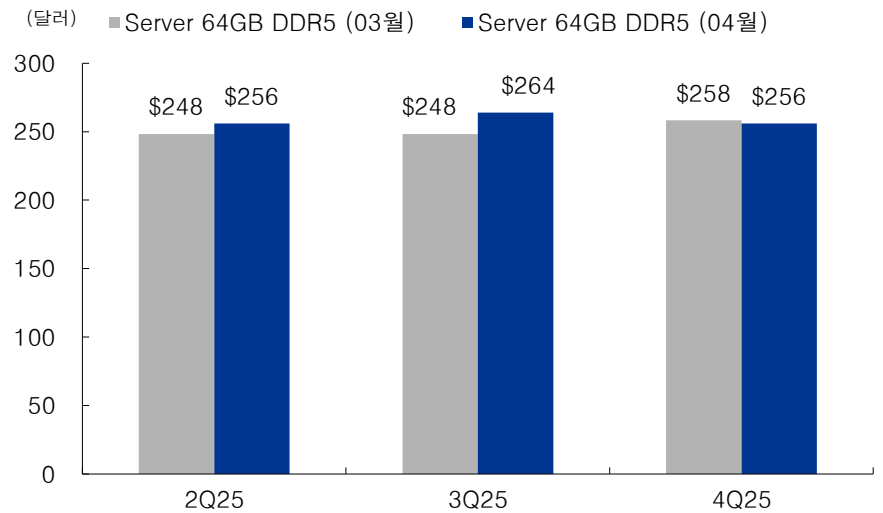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Key Chart

Server 64GB 추정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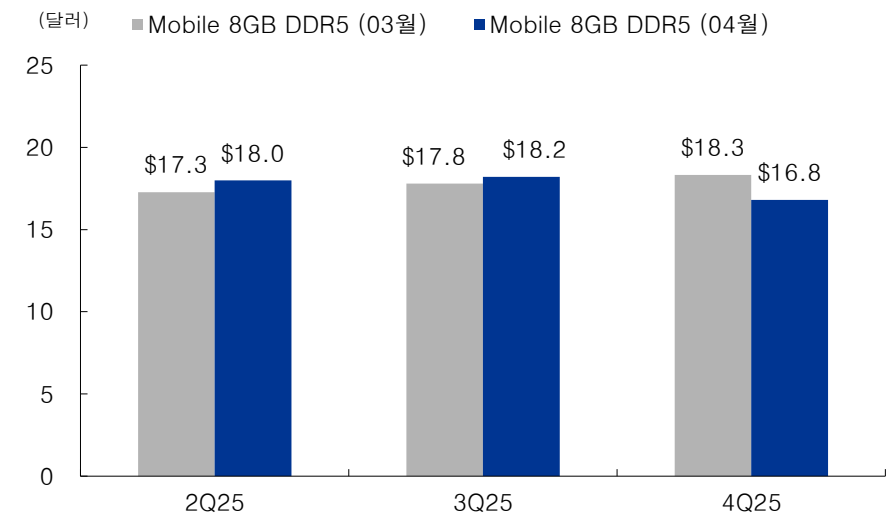
2Q25 +3.1%
3Q25 +6.3%
4Q25 -0.9%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Mobile 8GB 추정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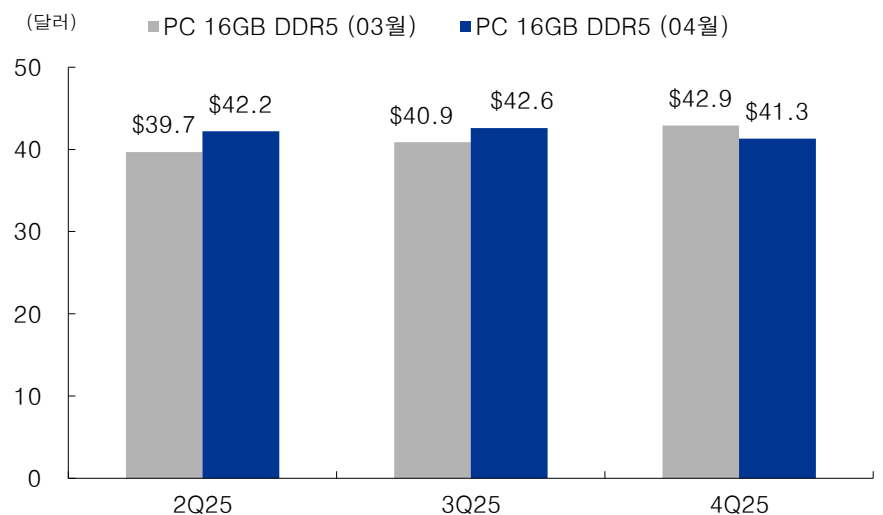
2Q25 +4.2%
3Q25 +2.3%
4Q25 -8.4%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PC 16GB 추정치 변화 추이

2Q25 +6.4%
3Q25 +4.2%
4Q25 -3.8%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Key Chart

DRAM Pricing

(단위 : 달러)

PC (UDIMM)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8GB DDR4	\$18.0	\$15.7	\$17.0	\$17.5	\$17.5	\$17.0
16GB DDR4	\$35.1	\$30.7	\$33.2	\$34.2	\$34.2	\$33.2
16GB DDR5	\$46.5	\$41.0	\$42.2	\$42.6	\$41.3	\$39.3
Server (RDIMM)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32GB DDR4	\$95	\$89	\$92	\$95	\$95	\$92
64GB DDR5	\$270	\$256	\$256	\$264	\$256	\$243
96GB DDR5	\$470	\$415	\$415	\$422	\$410	\$389
128GB DDR5	\$860	\$835	\$835	\$820	\$780	\$730
256GB DDR5	\$3,600	\$3,200	\$3,200	\$3,000	\$2,800	\$2,650
Mobile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8GB LPDDR4	\$17.5	\$15.5	\$16.2	\$16.3	\$15.8	\$15.0
12GB LPDDR4	\$26.0	\$23.1	\$24.2	\$24.5	\$23.7	\$22.5
8GB LPDDR5	\$18.5	\$17.5	\$18.0	\$18.2	\$16.8	\$15.8
12GB LPDDR5	\$27.7	\$26.0	\$27.0	\$27.3	\$25.0	\$23.6
Components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Gb DDR3	\$1.03	\$0.92	\$0.97	\$1.00	\$1.00	\$0.97
4Gb DDR3	\$1.22	\$1.10	\$1.16	\$1.19	\$1.19	\$1.15
4Gb DDR4	\$1.21	\$1.07	\$1.12	\$1.16	\$1.16	\$1.12
8Gb DDR4	\$2.13	\$1.81	\$1.96	\$2.02	\$2.02	\$1.95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